

## 경북지역 일부 초등학생의 비만이환율 및 비만도와 심혈관계질환 위험도간의 관련성에 관한 종적연구

김경애 · 권인숙 · 권정숙\*,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최근 경제수준의 향상과 함께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과거에는 성인에게서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비만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물론 아동에게까지 확대되어 아동건강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도시에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도 아동비만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및 심혈관계질환 등과 관련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아동건강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준하는 경북 북부지방의 일부 비만 초등학생들(180명, 남 112명, 여 68명)을 대상으로 1996년에서 1998년까지의 종적연구 형태로 체지방율, 혈압, 혈중지질농도를 분석하고, 아울러 심혈관계질환 위험인자 등을 분석하여 아동비만 이환율 및 아동비만도와 심혈관계질환 위험도간의 관련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비만이환율의 변화는 1996년 7.1%, 1997년 8.3%, 1998년 9.5%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여아보다 남아의 비만이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도 20-29%인 경도비만의 경우가 전체의 50% 이상으로서, 특히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중등도와 고도비만이 유의적으로 많이 나타나 성별에 따른 아동비만의 차이를 나타냈다. 비만이행 추이를 보면 1996년에 비해 1998년에 경도비만아의 수가 감소하여 중등도비만으로 이환하여 아동비만이 증가하였다(19명). 또한 비만도가 높아짐에 따라 체지방율과 혈중 중성지방 수준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p < 0.01$ ), 체지방율과 중성지방( $r = 0.222$ ,  $p < 0.001$ ), 비만도와 중성지방( $r = 0.146$ ,  $p < 0.001$ ), 비만도와 최고혈압( $r = 0.118$ ,  $p < 0.05$ )이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 아동의 비만도와 심혈관계질환 위험도간의 관련성을 암시하였다. 비만아의 심혈관계 발생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콜레스테롤(6.9%에서 28.3%), LDL-콜레스테롤(1.4%에서 18.5%) 수준 및 atherogenic index(13.9%에서 15.0%)도 3년 동안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아, 여아 모두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심혈관계질환 발생의 위험인자수가 증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농촌지역에서의 아동비만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아동의 비만도와 심혈관계질환 위험도간의 높은 관련성을 암시하는 바, 아동비만에 관한 올바른 영양교육 등으로 아동비만과 관련되어서 나타날 성인개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특히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